

번역아카데미 필기전형

예시문항 및 예시답안

♣ 다음의 제시된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한 달간의 동거였지만, 이미 고양이는 윤주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뱃살을 덜렁거리며 현관문으로 뛰어나왔고, 두 발로 서서 윤주의 다리에 붙었다. 윤주가 방으로 들어가면 앞서 걷다가 옆으로 쓰러져서 배를 보이고 꼬리로 바닥을 툑툑 쳤다. 윤주가 밥을 먹을 때도, 인터넷을 할 때도 고양이는 윤주를 주시했고 눈이 마주치면 눈을 깜박이며 눈 뽀뽀를 했다. 자려고 침대에 가면 따라와서 윤주의 팔에 기대고 자다가 아침이면 윤주의 배 위에 올라와서 꼭꼭이를 하기도 했다. 배 위에서의 꼭꼭이는 팔뼉이를 오래 키우면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대접이었다. 고양이는 천성이 다정한 아이였다.

결에 누워서 잠을 자는 고양이를 볼 때면 시간이 금방 갔다. 작은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동그란 배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꿈에서 달리기를 하는 듯 앞발을 움찔거리는 고양이. 배에 귀를 대보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다시 고양이의 심장으로 순환하는 소리에 윤주는 새삼스럽게도 마음이 아프곤 했다.

모르는 곳에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어리둥절했니. 나는 누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두 달이 지나고, 윤주는 고양이가 유기되었거나, 실종되었더라도 그럴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시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도 마음먹었으므로, 좋은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는 사람, 적어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주변에 성묘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양이(3세 추정, 중성화 완료 수컷)의 가족을 찾습니다. 순한 개냥이예요.’

윤주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입양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을 적었다. SNS 계정이라도 있었으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윤주는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와 ‘냥이네’에도 입양 홍보 글을 올렸다. 사진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올렸다. 분홍색 보타이를 매고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이불 안에 들어가서 자는 사진, 한쪽 앞다리를 들어서 ‘안녕’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올렸다.

‘학생 문의 사절합니다. 앞으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도 안 됩니다.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인 반려인을 구합니다.’

글을 딱딱하게 써서인지, 아깽이 대란 시즌이어서인지 입양 문의 쪽지나 답글이 거의 없었다. ‘귀여운 아인데 안됐네요’ ‘고양아 좋은 가족 만나’ 같은 응원 답글이 전부였다. 윤주는 수시로 카페와 쪽지와 메일을 확인하면서 입양 문의가 오기를 기다렸다. 입양 글을 올린 지 일주일도 지났을까. 고양이와 함께 자리에 누웠을 때 새 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떴다.

‘입양 문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안녕하세요. 고다*에서 보고 연락드려요.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저는 서른 셋 여자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어제 고양이 사진을 처음 보고, 계속 마음에 남아서 연락드려요. 이런 문의 드리는 거 처음이에요. 고다에 가입한 지도 꽤 됐는데 한동안은 눈팅만 했었거든요. 앞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남편이랑 고양이 키우는 거에 관한 얘기 다 됐구요. 아이 가질 계획도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취직해서까지 고양이 한 마리를 15년 키운 경험도 있어요. 충동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윤주는 핸드폰에 눈길을 잠시 주다가 메일함을 나왔다.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에게는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아무리 부부가 고양이를 잘 키우고 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곤 했다. 며느리가 임신해서 까지도 별말 없던 시가 식구가 출산 직후부터 고양이를 내다 버려야 한다고, 애한테 안 좋다고 매번 이야기한다든지, 난임부부에게 고양이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니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고민 글의 유형이었다.

*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라는 네이버 카페 이름의 줄임말

[번역 평가 문항 : 배점 70점]

1.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지원 언어로 번역하시오.

☞ 언어권별 번역 평가

[텍스트 이해도 평가 문항 : 배점 30점]

2. 윤주와 팔뼉이는 어떤 관계인가? (본문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시오)

☞ 예시 답안 : ‘꼭꼭이는 팔뼉이를 오래 키우면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대접이었다’ 라는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윤주가 오래 키우던 고양이

3. 팔뼉이는 현재 윤주와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예시 답안 : 다시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윤주와 팔뼉이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음

4. 본중 중의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는 무슨 의미인가?

☞ 예시 답안 :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는 의미

5. 윤주가 생각하기에 입양 홍보 글에 입양 문의나 쪽지 답글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예시 답안 : 홍보 글이 딱딱했고, 아깽이 대란 시즌이었기 때문에

6. 윤주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고양이 입양을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예시 답안 : 아이를 낳으면 고양이를 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